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7/31℃ 목포 17/27℃ 여수 18/2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95호 1판 2010년 6월 9일 수요일

단기 4343년 (음력 4월 27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뚝 선 나로호…성공발사만 남았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2차 발사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장착돼 기립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역경제 지킬 금융이 없다

자금 역외유출 22%…기업들 늘 자금 허덕

지역경제 기여도 서울의 4분의 1 수준 불과

외환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점포 10곳 가운데 3곳이 문을 닫고 시중은행들의 시장 잠식으로 지난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율이 2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서울의 4분의 1수준에 그쳤고 지역기업들은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에 따르면 2008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은행·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 금고) 점포수는 모두 489개로 1997년에 비해 34.5%(259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새마을 금고(54.5%)가 가장 크게 줄었고, 신용협동조합(43.5%)·상호저축은행(36.7%)·일반은행(-13.5%) 순이었다.

■광주·전남 금융기관 점포 추이

(개, 전국대비비중%)

금융기관	1997년	2008년	증감
은행	303(5.1)	262(4.9)	-13.5
저축은행	30(8.8)	19(6.3)	-36.7
신협	169(10.1)	96(17.6)	-43.5
새마을금고	246(9.0)	112(7.4)	-54.5
계	748	489	-34.6

〈자료 한국은행〉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점포수가 47.1% 격감한 데 비해 수도권은 4160개로 4.1%(183개) 증가했다.

금융기관 수도권 편중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권이 수익이 떨어지는 지역 점포망을 대거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금융산업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금융연관비율도 광주·전남은 2008년말 현재 0.72%로 지방평균(1.07%)을 밑돌았고, 서울(3.08%)에 크게 못미쳤다. 산업이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예금·대출금도 수도권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올 3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총예금 잔액은 25조 6687억원으로 전국비중 3.2%에 머무른 반면, 수도권은 71.8%를 차지했다.

지역 금융기관이 급감하면서 자금 역외유출도 심각했다. 시중은행들의 지역잠식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율은 21.6%로 서울(2.5%)의 9배에 육박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산업을 뒷받침할 지역 금융기관이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로호 오늘 오후 우주로

4시30분께 발사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최종 리허설을 끝내고 9일 오후 4시30분께 발사된다. 이로써 지난 2002년 8월 우주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8년만의 노력이 발사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3·18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8일 오전 11시부터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에 대한 최종 리허설을 실시했다.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은 "이날 나로호 발사대 이송과 기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리허설을 진행했다"며 "리허설은 순조로웠으며 발사 예정일과 예정시간도 지켜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나로호 기립 작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 민 센터장은 "나로호가 발사대로 이송되고 발사대 케이블마스트와 연결한 뒤 생겼던 전기적 신호 불안정 현상은 완벽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최종 리허설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제외하고 모든 전기적 점검을 비롯해 발사체, 지상설비, 자동발사체계 등 각종 부분에 대해 발사 당일과 똑같은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나로호는 발사체와 연료공급선의 문제, 기상이변 등이 없으면 발사 당일 15분 전 자동시퀀스 카운트다운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단계가 진행된다.

한편 9일 오후 나로호가 발사되면 12~13시간이 경과한 10일 새벽 과학기술위성 2호와 첫 교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 교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자국 땅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우주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입상자 명단 ▶16면

알림

인터넷 광주일보와 함께
생생한 월드컵 즐기세요

AFP통신과 공동 월드컵 홈페이지 개설

'지구인의 축제' 남아공 월드컵의 모든 것을 인터넷 광주일보와 함께!

인터넷 광주일보는 세계적 권위의 뉴스 에이전시 AFP통신(Agence France Presse)과 공동으로 8일부터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에 남아공 월드컵 홈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광주일보 남아공월드컵 홈페이지는 AFP가 남아공 현지에서 송고하는 월드컵 뉴스와 경기사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합니다.

특히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800여장의 대화면 사진(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맞는 1024 size)은 32개국 축구스타들의 역동적인 플레이와 땀방울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줄 것입니다.

선수 인터뷰와 경기장 주변 스케치, 거리 응원전 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최고급 화질을 자랑합니다. 태극전사들의 경기는 물론 월드컵 각 조 모든 경기 결과와 득점 순위, 볼 점유율 등 경기와 관련한 다양한 그래픽도 서비스됩니다.

인터넷 광주일보와 함께 월드컵을 즐기십시오.

월드컵 특집 발행…9~12면 쏙 뽑아 보세요

光州日報社

"광주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통폐합"

강운태 당선자 밝혀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8일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폐합 시기는 조직진단 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이내가 유력하다. 통폐합 기준은 ▲경영 및 구조실태 ▲기능 중복 여부 ▲설립 취지와 서비스의 부합 여부 등이며,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사전에 각 기관별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한 지를 따져보고,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기업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시설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곳이며, 출자·출연기관은 광주발전연구원·남도학숙·광주비엔날레·광주디자인센터·광주테크노파크·광주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5·18 기념재단·광주영어방송국·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 15곳이다.

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또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였던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